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9년도 제21차 회의

1. 일 자 2009년 9월 24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송 창 현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재 천 부총재보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유 병 갑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정 희 식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2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9년 9월)(안)>

(1) 2009년 9월 10일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 제42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9년 9월)(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됨에 따라 주관위원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

첫째, 전체 ‘목차’를 서술내용의 비중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개요의 서술방식도 정책결정의 배경, 내용 및 성과를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하였음. 둘째, 금융·경제동향(제 I 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대응으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음. 셋째, 통화신용정책 운영(제 II 장)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배경 및 완화적 통화정책 운영에 따른 정책성과를 중점 기술하였음. 넷째,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및 방향(제 III 장)은 7월 조사국 경제전망을 토대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였음

한편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후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보면,

첫째, “개요” 부분에서 주택가격 동향 부분 기술시 7월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추가하여 서술하였음. 둘째, 통화증가율 부분에서 최근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통화유통속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음. 셋째, 하반기 경상수지 및 물가 전망 관련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였음. 넷째,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기술시 그간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금융·경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내용을 보강하였음. 다섯째, “본문” 부분에서는 2/4분기중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구재 소비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CD 유통수익률이 8월 중순 이후 소폭 상승한 내용 등을 추가하였음.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을 반영하고 당행이 7월중 가입한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3월에 가입한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성격과 회원국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각주로 서술하였음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09년 9월)(심의위원회안)(생략)

〈의안 제44호 — 2009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44호 — 「2009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체감자금사정도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현재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9년 4/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전분기와 동일한 10조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구조조정 추진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제고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배정시 금융기관들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09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0.0조원으로 정한다.